

과업 15: 다중심적 자원 동원

협업 구성을 위한 도입 질문

교회, 초교파 단체, 일터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제자화 하기 위한 자금과 지혜의 공평한 공유를 위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가?

설명

비록 전 세계 기독교인의 비율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기독교의 지역적 인구통계는 급격하게 변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다수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변했다. 오늘날 글로벌 선교를 위한 다중심적 자원 동원은 주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한 자원 분배 패턴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사역과 자금 제공자 사이에 건전하지 않은 의존성을 조성한다.

이러한 역사적 편견은 글로벌 관점과 기여의 풍부한 다양성을 무시하는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의 교회, 사역, 선교적 비즈니스 그리고 자선가들은 자원 공유에 대해 보다 포용적이고 분산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그러한 협업은 현재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가 대위임령의 성취를 가속화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불일치를 인정하면서, 이 대화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글로벌 다중심적 자원 조달과 지혜 공유가 어떤 모습인지 탐구한다:

협업 질문

- 문화, 일터, 자원 동원자로부터 얻은 통찰력이 어떻게 글로벌 선교를 위한 자원 동원의 실천을 형성하는가?
- 세계 각지의 사역을 위한 다중심적 모금 모델은 어떤 모습인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경로는 무엇인가?
- 다중심적 금융 구조와 지혜 공유 채널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하위 주제

- 다중심적 모금 활동
- 다중심적 금융 구조
- 남반구의 자원 동원

2024 서울-인천 대회 준비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의 다음 섹션을 읽어보라.

- 로잔 신학위원회가 작성한 서론
- 1부,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구성된 전 세계적인 대위임령 현황
- 2부, '다중심적 자원의 동원'과 '아시아의 부상', '아프리카의 부상', 그리고 '다수 세계 선교 운동'에 관한 논문
- 3부, 주로 당신이 섬기는 지역교회나 선교단체가 위치한 특정 지역에 관한 자료